종립학교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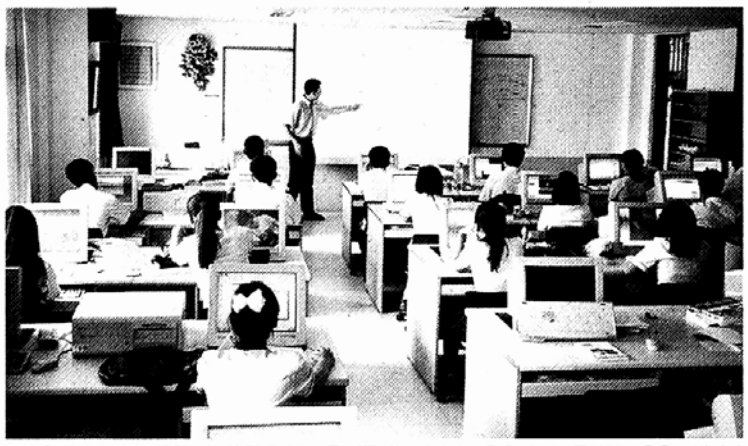
(3) 청담중 · 정보통신고등학교

21세기 정보화 교육의 요람을 지향하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청담중학교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청담 학원은 교육불사를 통한 인재 양성만이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혜성스님(도선사 회주)이 20여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설립됐다. 특히 4~5개의 본말사가 연합해 설립된 대다수의 종립학교들과는 달리 청담학원은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사찰인 도선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종립학교다.

한국의 빌게이츠 키우는 'IT 명문'

1970년 팽성중학교로 인가 받아 첫 출발을 한 청담학원은 75년 청담상업고등학교의 개교 이래 현재까지 우수한 실업인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99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정보통신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실력있는 IT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지역의 사학명문으로 발돋움했다. 2만여평의 부지에 둥지를 튼 청담학원은 현 이사장인 광복스님(도선사 주지)과 명예 이사장인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학생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특성화 교육지향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전문인 양성 △국가 사회 발전에 힘쓰는 애국인 양성 △불타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등의 교육 목표를 정해 인재 양성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도선사 혜성 스님 설립
교육부 특성화교 지정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한 학생당 1PC를 지급하는 최적의 교육 환경으로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며 우수한 IT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도량이다. 사진은 네트워크 디자인과 학생들의 수업 장면.

현재 각 학년이 네트워크 디자인과를 비롯해 전자상거래과,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등 4개과에 걸쳐 9학급으로 구성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에는 9백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또 한 명의 학생당 초고속 PC를 1개씩 사용할 정도로 전국 정보통신고교 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청담은 교실 자체가 웬만한 대학 못지 않은 웹 디자인실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자 상거래과를 신설해 특성화 학교로서의 내실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의 첨단화와 더불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60명의 우수한 교사진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의 각종 컴퓨터 경진대회에 상위 입상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 교육청이 주최한 학교교육계획서 심사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것도 청담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개교 당시부터 1년에 한 번 대강당에서 수계법회를 열어 해마다 4백명의 학생들에게 참불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청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포교 불사다. 또 청담은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나오기 전인 80년대 초까지 설립자인 혜성 스님이 매년 자비, 정진, 광명, 정각, 지혜와 같은 5종의 불교 교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등 불교 교육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찬불가 교재도 편찬해 음악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교내 찬불가 대회를 열어 청보리들에게 불음을 통해 법음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의 심성교육이외에도 청담은 취타대, 복싱부, 태권도부, 네트워크디자인과 프로그램 동아리 등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특기 · 적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 40여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취타대는 매년 조계사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물론 2002년 서울 월드컵 개막식 행사에 초청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2년연속 최우수 선정
독자교재로 불교 교육

총 9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는 청담중학교는 35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예능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은 청담중학교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번 사생대회에서도 10여명의 학생들이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다. 또 정길자 선생님(과학교사)이 20여년간 여름방학때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일 · 김두식 기자

◇상원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범종각 앞에서 참가자들에게 상원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궁서 108배 … 구도심 열기

본사 6월 3사순례 1백여명 참가

"월정사 적광전에는 교리로 따져보면 의당 계셔야 할 비로자나불 대신 석굴암 대불과 같은 석가여래가 모셔진게 다른 사찰과 다릅니다. 또 이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지이기도 하지요."

17일 오전 10시 무량수전에서 월정사 포교국장 선우스님은 월정사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했다. 윤사월을 맞아 기도순례차 현대불교가 주최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1백여명의 참가자들은 스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경청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문수동자 복장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성보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정사 경내 관람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상원사로 이동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상원사에 도착하자마자 도보로 40분 정도 걸리는 적멸보궁에 올라가 108배 기도 정진을 했다.

적멸보궁을 처음 올라가봤다는 청정심보살(73)은 "가파른 길을 올라갈땐 힘이 들어 망설였지만 올라가 108배까지 하고 나니 환희심을 느낀다"며 "이렇게 힘든길을 생전에 다시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좋아했다. 돌아오는길에는 구산선문의 중심도량이었던 사자산 적멸보궁도 참배했다. 김주일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 · 낙산사 · 등명 낙가사 · 정동진역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과 의상대사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홍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니다.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5만5천원(조식 ·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자율 바탕 창의적 인간 육성"

정보통신고 이근우 교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분야는 오직 정보통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첨단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자는게 청담의 교육 지표입니다."

이근우 청담정보통신고 교장은 이 학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산증인이자 청담인의 대부격이다. 이 교장은 설립당시부터 재단일과 학교의 교무 과장 등을 역임하며 청담이 무럭무럭 커나가는데 산파 역할을 해왔다. 이후 95년부터는 교장으로 부임해 직접 발로 뛰며 IT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가 하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오늘의 청담정보통신고를 일궈낸 일등공신이다.

신문과 잡지, 경전 등에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글귀를 발견하면 즉시 복사해 교사와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열성적인 이 교장은 "흡연과 음주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자율성을 보장해 학생들이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의 꿈은 앞으로 청담정보통신고에서 제2의 빌게이츠와 같은 우수한 IT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법당에만 가면 '고민 안녕'

교법사실에서 백미나 교법사

"학생들이 언제든지 법당에 찾아와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95년에 부임한 백 법사는 법당을 찾아온 학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며 친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줘 매일 상담을 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50여명의 불교학생회원들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백 법사는 각종 불교행사는 물론 학생 상담과 수업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신지식인 김성진 군

유해사이트 차단 S/W 배포

청담에는 신지식인이 있다. 스스로 컴퓨터에 미쳤다는 김성진군(청담고 2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군은 동아일보와 건국대가 주최한 컴퓨터 경진대회를 비롯해 배재대, 경북대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문가다. 지난 3월부터는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봤을때 부모님들이 "뭐야?"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모야(moya)' 라고 이름 붙인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8만여개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고 접속한 사이트를 저장해 준다.

"품앗이로 자비펴요"

청담자원봉사센터

청담정보통신고가 3월 평택시의 후원으로 문을 연 '청담자원봉사센터' 는 지역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자원봉사 실천학교다. 청담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 봉사단인 '품앗이' 도 결성해 지역 청소년 50여명이 복지시설 청소, 팽성지역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 10월에는 자원봉사 실천 사례 발표, 자원봉사에 관련된 영상물, 포스터, 홈페이지 등을 공모 시상하는 '청담 자원(자비) 봉사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담자원봉사센터에서는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031)691-8095

◇청담자원봉사센터의 모심기 봉사.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알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